

전남 도민 올해도 생활체육 즐길 공간 넉넉하네



지난해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을 진행한 목포 제일중(왼쪽)과 강진중학교에서 주민이 배드민턴과 배구 등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 학교체육시설 개방 학교

▲강진=강진동중·강진여중·강진중앙중·강진중·도암초 ▲곡성=고달초·죽곡초·한울고·삼기초 ▲광양=광양서초·광양중·마로초 ▲나주=나주중·노안중·산포초·세지초·한아름초 ▲목포=목포북고초·삼학초 ▲무안=망운초 ▲영광=영광공고·영광초 ▲영암=삼호중·영암여고·영암초 ▲장흥=대덕초·부산초·안양초·장흥서초·장흥여중·장흥초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 공모

전국 최다 32개교 최종 선정

전남 지역민이 올해도 넉넉한 학교체육시설에서 생활체육을 즐기게 됐다.

전남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2020년 학교체육시설개방사업 공모 결과, 목포·나주·광양 등 9개 시·군에서 32곳이 최종 선정돼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시설을 개방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전남의 학교체육시설 개방대상 공간은 전국 156곳 가운데 20.5%의 점유율이자 숫자로도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남도와 여건이 비슷한 충남

(20곳), 전북(23곳), 경북(20곳), 강원(10곳) 등을 크게 웃돈다.

전남의 개방대상 32곳은 사업비 7억1700만원을 지원받아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평일 방과후, 주말·공휴일에 도민들이 운동하는 장소로 개방될 예정이다. 현재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전남의 학교체육시설개방사업은 사업 첫 해인 2015년 9개 시·군 18곳에서 이듬해에는 19곳, 17년도 27곳, 18년도 25곳, 19년도 30곳을 개방함으로써 전남도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의 장을 폭넓게 마련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설을 개방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와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32명의 시설 관리 매니저를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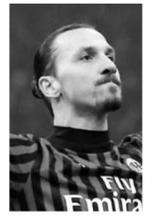
학교체육시설개방사업은 학교체육시설의 유휴 시간대 개방을 통해 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후원으로 운영된다.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은 "해마다 더 많은 시·군에서 체육시설을 새로 개방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 등 관련 단체와 긴밀한 관계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체육회가 있어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전남체육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즐라탄, 코로나19와 전쟁

하루 만에 2억원 모금



이탈리아 프로축구 AC밀란의 베테랑 골잡이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39·사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전쟁을 위한 군자금 모금에 나섰다.

영국 방송 BBC 인터넷판은 19일(한국시간) 즐라탄이 인터넷 기부 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com)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사업을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즐라탄은 스스로 10만 유로(약 1억4000만원)를 기부하며 솔선수범했고, 이 모금 페이지에는 개설 15시간이 지난 현재 15만324유로(약 2억1000만원)가 모였다.

평소 축구 실력만큼이나 자신감 넘치는 언행으로 더 주목받아온 즐라탄은 인스타그램에 "바이러스가 즐라탄에게 오지 않으면, 즐라탄이 바이러스에게 가겠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가 함께한다면 매일 코로나19와 싸투를 벌이는 의사·간호사들을 도울 수 있다. 단합해서 코로나19를 걸어차고 이 경기에서 승리를 쟁취하자"며 기부를 권유했다.

지난해 11월 미국프로축구(MLS) LA 갤럭시와 결별한 즐라탄은 2010~2012년까지 2년을 뛰었던 AC밀란에 복귀했다.

/연합뉴스

'맨유 전설' 네빌 소유 호텔

코로나 의료진 숙소로 제공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 게리 네빌(45)이 자신의 호텔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싸투를 벌이는 의료진 숙소로 제공한다.

영국 방송 BBC 인터넷판은 19일(한국시간) 네빌이 소유한 맨체스터 소재의 호텔 2곳이 영국 의료보험제인 국민보건서비스(NHS)에 편입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총 176명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는 이들 호텔은 당분간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무료 숙소로 쓰이게 된다.

이와 관련해 네빌은 대상으로 한 영업은 지난 주말 중단됐으며 오는 금요일부터는 의료진이 사용할 예정이다. 호텔 종업원은 모두 고용이 유지된다.

네빌은 "혹여 가족에게 코로나19를 전염할까 걱정하는 의료진은 언제나 우리 호텔에 무료로 묵을 수 있다"면서 "지금은 우리 축구인들이 단합이라는 게 뭔지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1991년 맨유 유소년팀에 입단한 네빌은 2011년 은퇴할 때까지 맨유에서만 활약했다.

한편, 최근 포르투갈 출신의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리스본 등지에 있는 자신의 호텔을 병원으로 바꿔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는 '가짜 뉴스'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호날두 소유 호텔 홈페이지에는 19일 현재 여전히 숙박 예약을 받고 있으며 "확실한 코로나19 방역을 고객들에게 약속한다"는 내용의 공지문이 올라와 있다.

/연합뉴스

류은희, 프랑스 핸드볼리그 '2월의 선수'

한국 여자 핸드볼의 간판 류은희(30)가 프랑스 여자 핸드볼리그 '2월의 선수'로 뽑혔다.

프랑스 여자핸드볼리그(LFH)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19-2020시즌 2월의 선수에 파리92 소속 류은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시즌까지 부산시청공단에서 활약한 류은희는 2018-2019시즌 SK핸드볼 코리아리그에서 소속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 최우수선수(MVP)를 석권했다.

이후 프랑스리그 파리92와 2년 계약을 맺고 유럽에 진출한 류은희는 이번 시즌 71골을 터뜨리며 득점 부문 공동 14위에 올라 있다.

류은희는 2월 소속팀의 3경기에 출전해 18골을 터뜨리며 프랑스 진출 첫해에 이달의 선수에 뽑히는 저력을 과시했다.

LFH 이달의 선수는 12개 팀 감독 등으로 구성된 후보 선정 위원회를 통해 3명의 후보를 가려낸 뒤 팬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류은희는 2월에 21골을 넣은 브루나 드 폴라(브라질), 19골의 멜리사 아가테(프랑스)와 함께 후보로 선정됐고 팬 투표에서는 45%를 획득해 31%의 드 폴라와 24%를 얻은 아가테를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류은희의 '2월의 선수' 선정을 알리는 프랑스여자 핸드볼리그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연합뉴스

프랑스리그는 4월 5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일정이 중단됐다.

류은희는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훈련 중인 국가대표팀에 곧 합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류은희는 8경기에서 69골을 넣어 득점 2위에 오르는 등 우리나라의 결선리그 진출에 앞장섰다.

또 1월에는 프랑스리그 주간 베스트 7에 뽑히며 세계적인 기량을 입증하기도 했다.

올림픽 정상 개최? 베테랑업체들은 '아니오'

올해 7월 도쿄올림픽의 정상 개최에 대해 외국 베테랑업체들은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베테랑업체인 윌리엄 힐은 19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올림픽 개최식이 2020년 7월 24일에 열리겠느냐'는 항목의 베테랑을 운영 중이다.

19일 오전 현재 '아니오'라는 응답의 베테랑들이 1/7, '예'에는 4/1의 베테랑들이 형성됐다.

이는 '도쿄올림픽 개최식이 7월 24일에 열리지 않을 것'에 1달러를 베테랑에 적중하면 1.14달러를 받고, 예정대로 도쿄올림픽이 진행된다는 쪽에 1달러를 걸어 맞으면 다섯 배인 5달러를 가져갈 수 있는 베테랑들이다.

현재로서는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을 그만큼 더 낮게 본다든 의미다.

도쿄올림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정상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정상 개최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일본 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연기 또는 취소의 응답률이 정상 개최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다.

또 AP통신, 뉴욕타임스와 같은 언론에서도 정상적인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IOC가 18일 집행위원회를 열고 "올림픽이 4개월 이상 남았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정상 개최에 힘을 실어주려 하자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들이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다른 베테랑업체인 패디파워의 베테랑들도 윌리엄 힐과 마찬가지로 했다.

이 업체의 베테랑들 역시 "2020년 7월 24일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개막 선언이 이뤄질 것"에 대한 베테랑들이 4/1, 7월 24일에 올림픽 개막 선언이 이뤄지지 않거나, 다른 장소에서 개막 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항목의 베테랑들은 1/7로 집계됐다.

'마이부기'라는 베테랑업체에서는 '도쿄올림픽 취소, 연기, 개최지 변경'에 대한 베테랑들이 -145, '취소나 연기, 개최지 변경이 없는 정상 개최' 베테랑들이 +105를 나타냈다.

이는 '취소, 연기, 개최지 변경'에 1달러를 걸었을 경우 1.69달러를 받지만 '정상 개최'에 1달러를 베테랑하면 2.05달러를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다.

역시 '취소, 연기, 개최지 변경' 가능성을 더 크게 본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3월22일(일)

▲광주자연보전담사회 3월 22일(일) 북한산(835.6m) 백운대-만경대-대동문, 영주체육관 05:00, 무등경기장 05:20, 동광주홈플러스 05:4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담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3월25일(수)

▲광주청록산악회 3월 25일(수) 충북 괴산 산악이옛길 트레킹, 백운로타리아어벙크아웃 06:30, 교직원공제회관 06:40, 예술

회관후문 06: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7:0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4월4일(토)

▲광주금당산악회 4월 4일(토) 고흥 북대산및 숲속, 봉선동 롯데슈퍼앞 07:10, 진월동 식자재마트앞 07:20, 영주체육관 정문 07:30, 한국병원앞 07:40, 문예회관 정문 육교앞 07:50,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08: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4월12일(일)

▲광주자연보전담사회 4월 12일(일) 용골

산(전북 순창), 영주체육관 07:00, 무등경기장 07:20, 동광주홈플러스 07:4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담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4월18일(토)

▲광주금당산악회 4월 18일(토) 여수환상의섬 연도 소리도 동백꽃 트레킹, 봉선동 롯데슈퍼앞 03:10, 진월동 식자재마트앞 03:20, 영주체육관 정문 03:30, 한국병원앞 03:40, 문예회관 정문 육교앞 03:50,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04: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합병에 따른 채권자의 및 주권 제출공고

(주)지디그룹(갑)과 (주)풍성제과(을)는 2020년 03월 19일 개최한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을"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갑"은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각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께서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03월 20일
("갑") (주)지디그룹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26길23(논현동) 대표이사 황수원
("을") (주)풍성제과 광주광역시 서구 마로로 8(마로동) 대표이사 문창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닝**

광고문의 (062) 227-9600 | 신문구독 (062) 220-0551 | 예약구독 (062) 220-0550

LOTTE CINEMA | 중창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즐거움 문화산책

2관 정직한 후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3관 인버저블맨,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4관 인버저블맨
5관 1917, 작은 아씨들
9관 다크 워터스, 작은 아씨들, 맘마미아!
7관 씨네카를 미드나잇 인 파리, 스타 이즈 본
8관 씨네카를 세인트 아가타, 비긴 어게인, 맘마미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동화음악회
GAC 기획공연-FOCUS 동화음악회 <책으로 똥을 뚫는 돼지>
4.7(화) 11:00, 14:00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에닝
GAC 기획공연-FOCUS 에닝매거진 체크나보라안 바이올린 리사이틀
4.9(목) 19:30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에닝
GAC 기획전시 화양연화 : 강남구 초대전
3.27(금) ~ 5.10(일) 광주문화회관 갤러리